

감독이 위협구를 지시했다면 형법상 '교사범'

Sports & Law Story | 법으로 풀어본 '빈볼'

실수로 맞혔을 땐 정당행위 가능성
고의 빈볼 퇴장은 형법 위법성 반영

스포츠 고유의 자율성 원리 존중해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려움

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나아가 야구공처럼 단단한 물건을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수로 타자를 맞혔다면

실수로 뿔가를 던져 사람을 맞히면 과실폭행 혹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과실폭행은 처벌하지 않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형태로 되어 있어 맞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기에서 실수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경우는 타자에게 1루로의 출루를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경기의 일부'인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이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라는 제목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수로 인한 몸에 맞는 공은 업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화와 롯데의 주말시리즈가 빈볼 시비로 얼룩졌다. 계속된 위협구와 이에 대항한 보복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렇게 위협과 보복이 난무하는 것은 야구인들 사이에 빈볼도 경기의 일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단단한 물체에 노출되는 위험한 스포츠인데, 하물며 일부러 사람을 맞히려는 행위가 경기의 일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빈볼은 경기의 일부일까?

●야구장이 아니라면

야구장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향해 공을 던졌다면 당연히 폭행



LG 정성훈이 지난해 SK전에서 상대투수 메릴 켈리의 투구에 머리를 맞고 있다. KBO리그 규정에는 직구로 타자 머리를 맞힌 투수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퇴장당한다. 다만 변화구일 때에는 퇴장당하지 않는다.

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러 타자를 맞혔다면

문제는 일부러 타자를 맞힌 경우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해야 한다. 또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힌 경우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누구도 납득할만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빈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상, 나아가 생명의 위험까지 조래하게 되므로 균형도 맞지 않는다. 위협구를 던져야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눈을 씻고 다시 살펴봐도 위법성이 사라질만한 사유는 없는 것이다. KB O 야구규칙 8.02(d)에도 투수의 금지 사항 중 하나로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대해 심판은 그 투수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거나 퇴장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형법상의 위법성을 야구규칙에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벤치에서 지시했다면

8.02(d)에는 심판이 '투수와 감독을 퇴장시키거나 퇴장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협구를 벤치에서 지시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협구를 지시한 감독에게 형법상 교사범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다. 형법 제31조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과 동일한 형태다.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위협구를 던져 상대 선수가 다쳤다고 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스포츠에는 그 종목에 고유한 자율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이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율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법률이 개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관중들이 너무 심하다고 눈살을 찌푸리며 스포츠를 외면하게 될 때 등이 그런 경우다.

●빈볼은 야구의 일부가 아니다

'야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그것은 빈볼 때문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빈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팬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정당당한 스포츠를 보고 싶은 것이지, 위협과 보복으로 가득 찬 스틸러를 보려고 야구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법률서신전직과정 양준진 부장검사



넥센은 올 시즌 고척스카이돔 시대를 열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척돔 효과 속에 팀 성적 3위에 홈경기 관중수도 지난해 51만802명(경기당 7094명)에서 올해 78만2121명(10862명)으로 크게 늘었다.

넥센, 홈경기 팀타율 3할대 1위... 고척돔 맞춤형 야구의 힘

넓은 좌·우중간 활용 3루타 증가
관중수도 UP...성적·홍행 다잡아

넥센은 16일 고척 kt전을 끝으로 올 시즌 홈경기를 모두 마쳤다. 고척스카이돔 시대 첫해의 피날레였다. 애초 넥센이 목동구장에서 고척돔으로 등지를 옮길 당시 '날씨에 관계없이 경기할 수 있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홈런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다. 목동구장의 외야펜스 거리는 좌우 98m, 중앙 118m로 다른 구장들보다 짧았고, 높이도 2m에 불과했다. 반면 고척돔은 좌우 99m, 중앙 122m, 높이 4m다.

또 올 시즌에 앞서 중심타자 박병호(미네소타)와 유한준(kt), 마무리 손승락(롯데), 필승투수원 한현희, 조상우(이상 팔꿈치 수술)가 이탈했다. 전력 이 약화했다. 끝자 후보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우려를 불식하며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고척돔 맞춤형 야구'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애초 기대했던 대로 마음껏 뛰면서 우려를 기우로 바꿨다.

넥센 경영진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고척돔에 최적화된 야구를 선보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디테일 야구'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그 중 하나가 줄어든 홈런을 2·3루타로 메우는 것이었다. 이는 생각대로 됐다. 타자들은 고척돔의 넓은 좌·우중간을 충분히 활용했다. 타구가 우중간으로 빠지면 대부분이 3루를 노렸다. 올 시즌 3루타 1위(39개)에 올라 있는 배경이다. 홈경기 타율(0.317)과 장타율(0.471)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왔다. 17일까지 홈경기 타율이 3할대인 팀은 넥센이 유일하다.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은 홈경기 장타

율 1위다. 넥센은 지난해 목동구장에서 0.522의 장타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홈경기에서 지난해(117개)보다 51개 적은 64개의 홈런만 기록했다. 우려대로 홈런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10개에 불과했던 홈경기 3루타가 2.9배 늘었다(29개). 그러면서 득점 확률을 크게 높였다. 고척돔에서 총 444점을 뽑아 홈경기 득점 1위다.

홈경기 승률도 44승28패(승률 0.611)로 2위였다. 승수로는 따지면 두산(43승23패1무)보다 1승이 많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돔구장의 장점에 성격까지 내면서 관중을 끌어 모았다는 평가다. 넥센의 홈경기 관중수는 지난해 51만802명(경기당 7094명)에서 올해 78만2121명(10862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적에 흥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니 고척돔 시대 첫해는 성공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백용환 시즌 아웃...갈 길 바쁜 KIA에 악재



백용환은 17일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한국병원에서 검진 결과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KIA 구단관계자는 18일 대전 한화

전에 앞서 "재활에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추가 검진을 받고 수술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 잔여경기는 물론 내년 시즌 초반 출장 여부도 미지수다.

백용환은 15일 잠실 LG전에서 3회 3루 주자 손주인을 태그하다 그라운드에 넘어졌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결국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백용환은 16일 1군에서 말소됐고, 이성우가 그 자리를 메웠다.

백용환은 올 시즌 80경기에서 타율 0.195(174타수34안타), 4홈런, 15타점을 기록했다. 공격에선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0.304의 도루저지율(56시도 17성공)을 보이며 포수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 KIA 포수 중 도루저지 유희수가 가장 많았다.

대전 | 강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NL 서부지구 최하위 애리조나의 '위안거리'



손건영의 코모닝 MLB

세구라, 방황 끝내고 재기 성공
램·제이크, 정상급 거포로 변신
레이, 탈삼진 202개로 NL 5위
신예선수들 성장으로 내년 기대



진 세구라



제이크 램



아스마니 토마스



로비 레이

162경기를 펼치는 메이저리그 페넌트레이스 대장정의 종착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6시즌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6개 디비전(지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곳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꼽았다. 3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차지한 LA 다저스, 2010년 이후 3차례 짝수 해에 월드시리즈 우승의 기적을 일궈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잭 그레인키를 영입한 애리조나 다백스의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 시즌도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2파전으로 페넌트레이스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백스는 선두 경쟁은커녕 서부지구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일(한국시간)까지 62승86패(승률 0.419)를 기록 중인 다백스는 메이저리그 30개팀 가운데 미네소타 트윈스(55승94패·승률 0.369)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57승91패·승률 0.385)를 제외하고 전체승률 공동 26위에 머물러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에이스 잭 그레인키는 12승(7패)을 따냈지만 자신의 13년 경력 중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방어율 4.42를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타자 폴 골드슈미트도 짝수 해에 약한 징크스를 또 다시 재현했다. 2013년(36홈런)과 2015년(33홈런)에 총 69개의 홈런을 때린 것과는 달리 2010년 20홈런, 2012년 19홈런에 그쳤던 골드슈미트는 올 시즌에도 20개의 홈런에 머물고 있다. AJ 폴락은 시범경기 막판 오른쪽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고 8월 말에야 복귀했지만 타격 감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올 시즌에도 가을야구는 물 건너 갔지만 커리어 시즌을 짚은 신예 선수들의 눈부신 성장은 내년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방울뱀 단단의 커다란 위안거리다.

●아름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세구라

2014년 7월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의 진 세구라(26)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생후 9개월 된 아들 자니엘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24세에 불과한 세구라는 2년여간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2013년 0.294였던 타율은 0.246로 추락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0.257에 출루율 0.281, 장타율 0.336에 그쳤다. 밀워키를 떠나 애리조나로 등지를 옮기며 심기일전한 세구라는 올 시즌 타율 0.317로 내셔널리그 4위, 91득점으로 7위, 30도루로 4위를 달리며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홈런도 생애 최다인 17개를 때렸고 57타점을 수확했다.

●램과 토마스의 홈런파워

201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3루수 제이크 램(25)이 지난 2년간 쏘아 올린 홈런은 10개에 불과하다. 타점도 45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으며 출전 기회를 보장받자 리그 정상급 왼손 파워히터로 변신했다. 올 시즌 타율은 0.256으로 높지 않지만 28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 내 최다인 88타점을 기록, 거포의 상징인 100타점 고지도 바라보고 있다.

2년차 쿠바산 거포 아스마니 토마스(25)도 완전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했다. 9홈런, 48타점에 그쳤던 루키 시즌(2015 시즌)과는 달리 올해는 팀 내 최다인 29홈런을 뽑아내며 75타점을 기록 중

이다. 골드슈미트-램-토마스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워는 리그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세대 삼진왕 레이

그레인키에 이어 2선발로 기대를 모았던 켈비 밀러가 2승12패(방어율 6.90)의 참담한 성적을 낸 가운데 24세의 좌완투수 로비 레이(160.1이닝)를 던져 방어율 4.55를 기록 중이다. 평범한 투수로 보이지만 레이의 탈삼진 202개로 내셔널리그 5위다. 9이닝당 삼진은 무려 11.34개나 된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그보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많은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호세 페르난데스(12.44개)가 유일하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스티브 스트라스버그(11.15), 맥스 슈어저(11.06), 뉴욕 메츠의 노아 신더가드(10.60), 탬파베이 레이스의 크리스 아처(10.54), 뉴욕 양키스의 마이클 피네다(10.33),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매디슨 범가너(10.08) 등보다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주무기는 평균 시속 94.1마일(151km)에 달하는 빠른 직구와 85.1마일(137km)의 슬라이더. 커브와 체인지업도 던지지만 직구와 슬라이더에 거의 의존하는 투피치 투수다. 올 시즌 가장 많은 삼진을 뽑아냈던 경기는 8월2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으로 7회까지 13개의 'K'를 그려냈다.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